

# 동아스포츠대상 영광의 수상자 누구?

양현종·이재성·오세근 등  
2017 올해의 선수 선정  
특별상엔 국민타자 이승엽

프로야구의 양현종, 프로축구의 이재성 등이 2017 동아스포츠대상을 수상했다.

CMS와 함께하는 2017 동아스포츠대상이 1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스포츠동아, 동아일보, 채널A, CMS(센트럴메디컬서비스(주))가 공동 주최한 CMS와 함께하는 2017 동아스포츠대상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5대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직접 투표로 종합별 '올해의 선수'를 선정했다.

투표 집계 결과, 프로야구에서 KIA 타이거즈를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에이스 양현종이 SK 와이번스의 홈런왕 최정을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양현종은 KBO 정규시즌 MVP, 한국시리즈 MVP에 이어 선수들이 뽑은 CMS와 함께하는 2017 동아스포츠대상 프로야구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다. 프로축구에서는 전북현대를 우승으로 이끈 미드필더 이재성이 수원삼성 열기훈, 강원FC 이근호를 넘어섰다. 이재성은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1부리그) MVP와 베스트 11



2017 CMS와 함께하는 동아스포츠대상 시상식이 열린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프로배구 남자 문성민(왼쪽부터), 여자 김해란, 골프 이정은, 프로농구 여자 박혜진, 프로야구 양현종, 특별상 이승엽.

선정에 이어 또 한 번 영광을 누렸다. 양현종과 이재성은 처음으로 동아스포츠대상 올해의 선수를 차지했다. 남자프로골프는 최진호(현대제철), 여자프로골프는 이정은(토니모리)이 '올해의 선수'가 됐다. 최진호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016~2017 시즌을 기준으로 한 남자프로농구 올해의 선수는 KGC인삼공사 센터 오세근에게 돌아갔다. 오세근은 이정현(KCC), 박찬희(전지랜드)보다 많은 선수들의 지지를 얻어

2012년 이후 두번째로 수상 감격을 누렸다.

여자프로농구는 우리은행 박혜진이 3년 연속 수상자가 되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2009년 제1회 시상식 이후 동아스포츠대상에서 3년 연속 수상은 5대 프로스포츠 통틀어 박혜진이 최초다.

남자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의 문성민도 개인 통산 세 번째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문성민은 2013년,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남자배구 최고선수를 차지했다.

여자프로배구는 흥국생명 리베로 김해란이 리베로로서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김해란도 2012년 이후 두 번째 영예를 차지했다.

특별상은 올해를 끝으로 명예롭게 은퇴한 '국민타자' 이승엽(전 삼성)이 수상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CMS와 함께하는 2017 동아스포츠대상은 지난해보다 '올해의 선수' 상금 규모를 두 배로 늘렸다. '올해의 선수' 수상자들에게 개인별 1000만원씩, 총 8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뉴시스

## MBC 신동호 국장 물러난다

인사혁신 통해 정상화 박차



분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인사 조치를 시사했었다.

신 국장은 지난 8일 오는 12일부터 시작하는 장기 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후임 야나우서 국장은 구(舊) 경영진 체제하에서 부당 전보된 야나우서 가운데 임명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MBC는 최 사장 체제 출범 이후 인사 혁신을 통해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시스

신동호(사진) 야나우서 국장이 결국 물러난다.

11일 MBC 관계자에 따르면, 신 국장은 이날 오후 단행될 인사에서 교체될 예정이다.

지난 8일 취임한 최승호 사장은 당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신 국장에 대해 "신동호 야나우서 같은 경우는 과거 야나우서국에서 무려 11명의 야나우서가 떠나가도록 만들었고, 열 몇 명의 야나우서들이 자기 일을 못 하고 부당 전보된 도록 하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드러났다"며 "그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회사가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

## 엑소, 자체 음반 사상 최고 판매량 기록

정규 4집 160만장 육박

만2792장으로 160만장에 육박했다.

SM은 "엑소 발매 음반 사상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한류그룹 '엑소'가 정규 4집 '더 워'로 자체 음반 사상 최고 판매량 기록을 경신했다.

1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가온차트 11월30일 기준 '더 워'의 판매량은 108만6307장, '더 워 리패키지 더 워 : 더 파워 오브 뮤직'의 판매량은 50만6485장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규와 리패키지를 합쳐 엑소의 이번 4집 음반 판매량은 159

앞서 엑소는 올해 '더 워'가 음반 판매량 100만장을 돌파하면서 정규 앨범 4집이 모두 100만장을 넘긴 '워 드러플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

이와 함께 아이튠즈 종합 앨범 차트 세계 42개 지역 1위,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2주 연속 1위, 일본 타워레코드 '2017 베스트 셀러즈' K팝 수입 앨범 1위 등 글로벌한 호응도 얻었다. /뉴시스

## KLPGA 개막전 우승 최혜진 세계랭킹 수직상승 143→13위

평산산 5주 연속 1위... 박성현 2위 유지

최혜진(18·롯데)이 투키 시즌 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개막전 우승과 함께 세계 랭킹을 끌어 올렸다. 11일(한국시간) 발표된 세계 여자골프 랭킹에서 최혜진은 평균 4.80점을 기록,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한 13위에 이름을 걸었다.

최혜진은 10일 베트남에서 막을 내린 KLPGA 투어 2018시즌 개막전 '효성 챔피언십 위드 SBS'에서 5타차 역전 우승을 차지하며 프로 첫 우승과 함께 투어 통산 3승을 달성했다.

2017년 첫째 주 세계랭킹 143위에 머물러 있던 최혜진은 지난 1년 동안 세계랭킹을 무려 130계단이나 뛰어

올랐다. 불과 11개 대회에 출전해 거둔 성과다.

이 중 KLPGA 투어 9개 대회에서 우승 3회와 준우승 2회 등 톱5에 6차례나 올랐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는 깜짝 준우승했다.

지난 8월 프로로 전향했지만 여전히 여고생 신분인 최혜진은 1년 만에 LPGA 투어를 주무대로 삼지 않는 선수 중 세계 최고 랭커가 됐다.

LPGA 투어가 휴식기에 접어들면서 상위권 순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평산산(중국)이 평균 8.27점으로 5주 연속 세계 랭킹 1위를 지켰다. 박



최혜진이 10일 베트남 호찌민 트윈도브스GC에서 끝난 '효성 챔피언십'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성현(24·KEB하나은행)은 8.17점으로 2위를 유지했다. 평산산과 격차는 0.10점이다.

유소연(27·메디힐), 렉시 톨슨(미국)이 세계 랭킹 3, 4위를 지켰다. 전인지(23)는 에리아 푸타누칸(태국)과

자리바꿈하며 5위가 됐다.

안나 노르드퀴비스트(스웨덴), 김인경(29·한화), 리디아 고(뉴질랜드), 크리스티 커(미국)가 7~10위로 톱10에 자리했다. /뉴시스

## 송선미 남편 살해교사한 30대 무죄 주장

"관여 안했다" 혐의 전면 부인



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2일 열린 자신의 살인 혐의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곽씨에게 살인 교사를 받았다"

배우 송선미(사진)씨 남편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재일교포 재력가 장군이 "왜 송씨 남편을 살해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광복(38)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곽씨 측 변호인은 "송씨의 남편을 살해한 조모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씨 측은 "조씨에게 거액의 살인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살인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사전에 인지한 사실도 없다"며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

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곽씨는 재일교포인 조부가 소유한 600억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을 위조하고 소유 예금 약 3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씨에게 송씨 남편이자 조부의 외손자인 고모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교사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해 구속기소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시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